

“버리고 비우면 새로운 에너지 얻을 수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 추구 'The Simple' 오경미 대표



최소한 물건만 갖고 생활하는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를 주축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트렌드 키워드로 꼽혔다.

광주시 동구 동명동 정리정돈업체 'The Simple'(더 심플) 오경미(49) 대표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을 돕는 지칭 '정리해주는 여자'다. 그의 지론은 "지나친 소유욕에서 벗어나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을 나눌 때 이들에게 도움도 되고 자신의 마음도 가벼워질 수 있다"로 요약된다.

오 대표는 정리정돈을 통해 공간에 질서가 잡히면 돈과 시간, 에너지 등 낭비요소가 제거될 수 있다고 했다.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면 일과 기쁨이 생기고, 실행·창의력을 끌어올려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청결한 공간에서는 자연스레 스트레스가 적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영광 여성의 전화'에서 근무하며 18년을 시민활동가로 활동했던 오 대표가 정리정돈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지난 2008년부터.

"가정폭력 상담을 받고 현장에 가보면 유독 정리가 안 돼 있는 집이 많았어요. 내면이 불안하면 잡동사니가 쌓이고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공간에서 살면 심리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안청소나 정리 문제로 부부간, 고부간 다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 대표는 이런

지나친 소유욕에서 벗어나

이웃과 나누면 마음의 여유 생겨

취약계층 정리정돈 돕기 모금운동

사소한 다툼이 가정폭력이나 이혼으로 이어지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자 더 나아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비싼 정리정돈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영광지역 이주여성들과 정부가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voucher) 사업으로 진행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2015년 보건복지부 바우처 아이디어 공모에 지원, 사회적 약자의 정리정돈을 돕는 아이템으로 전남지역 개인 2위를 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창업을 나선 오 대표는 소년·소녀가장과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인들에게 후원금을 모으고 소셜펀딩도 진행해 사회적 약자들의 정리를 도움 예정이다. 그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1억원짜리 물건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1억원의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소유하고 있으면 좋아야 하는데 집안을 어지럽히며 불편함을 준다. 펜션이나 호텔에 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불필요한 물건들이 없어서다. '언젠가 필요하겠지'라는 생각과 추억 때문에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게 사람 마음이다. 아픔과 배신 등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슬픈감정에 따라 물건을 모아두기도 한다.

오 대표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상처를 어루만져 줬을 때 비로소 감정과 물건을 동시에 털어낼 수 있다"며 "수납 잘하고 예쁘게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녀는 추후 법인을 설립해 전국에 각 지사를 모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정리를 돕는 사회공헌활동 등 가치와 철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다.

"과도한 전기제품 사용으로 핵발전소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불필요한 소비는 쓰레기를 만들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오프라인프린터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으면 잡동사니를 버리고 싶었다. 보이는 것으로 부모의 척도를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치와 경험에 대한 투자가 진정한 부의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됐으면 해요."

/*박기용기자 pbxer@kwangju.co.kr

나치 핵심 괴벨스 비서 품절 사망



나치 정권의 핵심 지도자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마지막 생존자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최측근인 요제프 괴벨스 선전장관의 여비서 브룬힐데 품절이 지난 27일 사망했다. 올해 106세다.

품절은 나치의 핵심 권력집단에서 활동한 인사 가운데 최근까지 생존해 역사학자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인물. 그는 괴벨스와 그의 아내 마그다가 자녀 6명을 독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1945년 5월 1일까지 3년 동안 괴벨스의 비서로 활동했다.

품절은 그간 나치 정권의 부역자라는 비판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괴벨스의 비서로서 그가 맡은 업무 중 하나는 조직적인 통계조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 잡무도 했지만, 전쟁에서 숨진 독일 병사들의 수를 줄이고 러시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독일 여성의 수를 늘리는 일에 가담했다.

그러나 품절은 "나는 괴벨스의 사무실에서 타자기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지난해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요즘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살았다면 나치 정권에 발정시켰고 독일 병사들의 수를 줄이고 러시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독일 여성의 수를 늘리는 일에 가담했다."

/*연합뉴스

김유정 광주음악협회장 '한국음악상' 수상



김유정 광주음악협회장이 지난 31일 (사)한국음악협회(이사장 김용진)가 수여하는 '2016년 한국음악상'을 수상했다.

이날 서울 대한민국예술인센터 3층 리허설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 회장은 광주음악협회를 이끌고 음악계를 발전시키고 광주의 문화발달을 선도해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1979년 제정된 한국음악상은 음악계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시상위원회에서 선정해 분상, 특별상, 공로상, 신인음악상, 우수지회(부)로 나누어 시상한다. 광주음악협회는 이날 우수지회상도 함께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종철 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 회장 선임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는 최근 '제27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종철 (주)총일 이.엔지 대표이사를 제11대 광주시회 회장으로, 노정규 현대모텍(주)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전기공사협회 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할 8명의 신임 대의원도 함께 선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기업체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과 함께 지역 대학과 공업계고등학교 전기과 재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동운 광주시관광협회 11대 회장 취임



광주시관광협회는 지난 31일 광주 신양파크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1대 김동운(59)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신임 김 회장은 귀빈여행사와 은하수 전세버스협동조합 등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지역에서 30여년 간 관광업에 종사한 지역 관광업계의 산증인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용산빌 KTX와 수서빌 SRT 완전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2시간 내의 생활권으로 자리매김 한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면서 "관광인들의 바램에 어긋나지 않는 협회장으로 지역관광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목포대 검도부를 비롯한 각국 선수단이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국가대표대항 검도대회에서 대회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목포대 제공>

목포대, 유럽국가대표대항 검도 2년 연속 우승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최일) 검도부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국가대표대항 검도대회에 초청 참가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대표해 목포대 검도부가 참가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폴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10개국 국가 대표팀 대항 풀리기로 진행됐다.

목포대 검도부는 10전 전승의 독보적인 성적으로 우승해 한국검도의 우수성을 유럽인들에게 널리 각인했다.

목포대 검도부를 지도하는 박동철 교수(공인 8단)는 대회 참가 외에도 유럽을 순회 방문하며 유럽 검도인에게 한국검도의 뛰어난 기술과 이론을 지도했다. /*목포=김준식기자 kjs0533@



재능기부로 광주북초 졸업앨범을 제작한 윤정원, 배우형, 김지원 학생과 김영길씨.

“오랫동안 보고 싶은 졸업앨범 만들었어요”

졸업앨범 사진전 여는 광주북초교

“흔한 앨범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되는 앨범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광주북초등학교(교장 이해경)는 1일부터 14일까지 광주북구일곡도서관 갤러리에서 졸업앨범 사진전을 열어 '아름다운 작은 학교 이야기-식구'전을 연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가족사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선보인다.

사진전지는 졸업생 김유오름(13)양의 아버지 김영길씨, 학교밖 청소년 김지원(18)군과 배우형·윤정원(18)양 등 4명의 재능기부로 마련했다. 이들은 학생수가 적은 탓에 앨범제작업체가 나서지 않아 매년 어려움을 겪던 광주

북초 졸업앨범을 만들기로 의결을 모았다.

사진작가인 김영길씨는 "사춘기 아이들이 가족과 모여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졸업생들에게 '학교에서 기억하고 싶은 장소'를 물어 해당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수학여행까지 동행해 학생들의 모습을 담았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그들의 가족사진을 담은 사람이 우리여서 참 감사했어요. 순간의 소중함이 그리울 때, 사랑하는 이들의 눈빛과 손끝 하나하나가 보고 싶을 때 조심스레 꺼낼 수 있는 추억이 되길 바라요."(윤정원양) 문의 062-410-6884. /*박기용기자 pbxe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 ▲하동정씨 장령공파 종회(회장 정이현) 성모 및 신년하례회=2일(목) 오전 11시 영암군 신복면 모산리 종회관 문의 010-8649-5011.
- ▲경주김씨 광주·전남종친회 재광 회원 모임=6일(월) 오전 11시 5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 '맛집한겨레' 문의 사무국장 김재찬 010-6455-6296.

동문회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6일(월)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화랑동화관 문의 062-224-1800.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

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하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

는 하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모집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중장년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무료 수강생=제2인생설계 아카데미(매주 목요일), 퇴직자 중심 사회공헌 아카데미(매주 월·수요일), 전문강사 양성(매주 월요일), 나만의 브랜드 홍보 마케팅(매주 화요일), 비영리단체 설립운영(매주 금요일) 등, 교육문의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생이모작지원팀 062-600-5241 ~2.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광주유교대학 학생모집=1학년 신입

생 50명 월·수 오후 3시30분~5시30분 교육, 2학년 편입생 20명 화·목 오후 3시30분~5시30분 교육, 성별·학력·나이 제한 없이 유교입문학과 유교경전(사서삼경 등) 교육으로 원서접수 2월28일까지, 문의 광주유교대학 사무처 062-672-7008.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장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장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간,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 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속삭이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부음

▲이민승씨 별세 흥배·형석(전 전남대 교수)·진석(유니에스 이사)·태석(이치엘페이 전무)·장석(목포MBC 사장)씨 부친상 최장친(대전시 상수도본부)씨 부부상=발인 1일(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02-2072-2091.

▲이덕모씨 별세 추기명·명현·은현·민대·경자·미자·정자씨 모친상 김옥진·이경미·김미정씨 시모상 박영규·오경철·노창훈씨 빙모상=발인 1일(수)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박찬석씨 별세 원우(전남매일 사회부장)·은주·태현(금호터미널 대리)·선강(아시아경제 호남 차장)씨 부친상 유호규(전남대 사무관)씨 부부상 신선경(장성군청)씨 시부상=발인 2일(목) 광주시 북구 그린장례식장 본관 2층 제9분향소 062-250-4409.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선완씨 남(남/93세) 子/子婦: 신원호/김남희, 태호/김정희, /서종숙 선호/김경자, 덕호/윤승희 女/婿: 신현옥/서준호, 옥/최성현 *발 인: 2월 1일 *장 지: 영락공원	301호 故김복심씨 남(남/87세) 子/子婦: 이장두/나인성, 상호/허경란 女/婿: 이장숙/노경란, 장애/자운석, 정화/나승림 *발 인: 2월 1일 *장 지: 담양부활의집 *연락처: 227-4382
102호 故김재균씨 남(남/48세) 子: 김원석 *발 인: 2월 2일 *장 지: 영락공원	
함께한10년.함께할100년 금호상례식장 대표이사 구제길 062-227-4000 www.mykumho.com	